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

장효진 · 임정하*

아이스펜지 어학원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Hope in Relation to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Jang, HyoJin · Lim, JungHa*

I-Sponge English Academ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pe in relation to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Four hundred adolescents at two middle schools and two high schools participat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Hope and social support were assess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Finding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and level of hope in adolescents. Adolescents' hope was influenced by gender, religious experience and social support. Specifically, informational support of parents and appraisal support of friends were the two most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hope of adolescents.

Key Words: 희망(hope),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청소년(adolescents)

I. 서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여러 형태의 회로애락을 경험하게 된다. 인생이 기쁘고 즐겁기만 하면 좋겠지만, 인생은 고난과 역경도 수반하고 인간은 이로 인해 때로는 실패감을 느끼고 좌절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삶의 회로애락 속에서 인간은 기쁨을 더 크게 슬픔을 더 작게 하려 애쓰고 삶의 의미를 찾

으려 한다. 이처럼 인간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 과정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미래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좋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 또는 바람'으로 정의된다(동아국어사전, 2000). 이처럼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인 희망을 Stotland(1969)는 동기화 이론을 적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념화 하였다. 그는 희망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게 하는 인간행동의

1) 교신저자: Lim, JungH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Anam-dong, Seongbuk-gu, Seoul, 136-701, Republic of Korea
Tel: 02-3290-2327, Fax: 02-927-7934, E-mail: jhlim@korea.ac.kr

2)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석사학위논문들의 일부임.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았다. 이후 Snyder(1996)는 Stotland의 희망개념에서 인지적인 과정을 강조하며 희망을 일으키는 수단과 동기를 제안한 희망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희망이론의 목적은 부정적인 정서에만 주목해오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개인이 지닌 강점과 장점을 극대화하여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긍정 심리학에 기반을 둔 희망의 다양한 효과는 희망수준이 높은 집단이 희망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업, 스포츠, 신체적 건강, 심리적 적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 높은 수행력 및 적응력을 보이는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Snyder, 2002).

예를 들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Snyder et al., 1991, 1997)에서 희망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수행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수준이 높은 운동선수들은 희망수준이 낮은 운동선수들에 비해 더 우수한 운동수행력을 보였다(Curry & Snyder, 2000).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희망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은 낮은 대학생들보다 자신감 있고 의욕이 높았으며 자기가치 및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Chang, 1998; Snyder et al., 1991).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희망수준이 높은 집단은 대인관계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nyder, Cheavens, & Sympson, 1997).

이들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희망은 변화를 촉진시키고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며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희망 연구는 암환자, 중환자, 만성재활환자 등의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거나 가난이나 위기, 상실을 경험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Herth & Cutcliffe, 2002). 희망은 극단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집단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뿐 아니라 건강상태가 양호한, 안녕의 상태에 있는 일반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에게도 이후의 긍정적 발달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희망 관련 연구에서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다.

청소년기는 성취해야 할 많은 과제와 미래에 대한 고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시기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망은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

다. Smith-Storner와 Frost(1999)는 희망을 청소년들이 변화에 적응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게 하여 미래를 향하여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에너지라고 보았다. 즉 청소년에게 있어 희망은 미래의 목표달성을 위한 긍정적 기대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요소라는 것이다.

Miller와 Power(1985)에 따르면, 희망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적인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개인마다 그 원천이 다르지만 흔히 개인의 믿음, 타인과의 관계, 필요한 존재라는 감정, 어떤 것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부터 생긴다. 또한 이러한 희망을 지속시키는 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상은 개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나아가 희망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도움과 지지가 중요하다(McGee, 1984). 즉 희망은 개인을 둘러싼 의미 있는 타인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 및 도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미있는 주변 타인들의 지지는 혹여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스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청소년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자신감과 기대감은 희망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청소년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희망과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희망과의 관련성에 있어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제공자별로 구분하여 어떠한 유형의 지지가 희망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지지를 다룬 연구 대부분은 지지제공자별(한미현, 1996; 홍정은, 2006)로 구분하거나 지지유형별(김지은, 2005; 주현정, 1998)로 분류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집중하였다. 하지만 지지제공자에 따라 보다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지지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제공자를 부모, 교사, 친구로 구분하고, 이들 각 대상에 따라 어떤 유형의 지지가 청소년의 희망에 중요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관련 선행 연구는 대부분 암(문희, 이정숙, 1995; 임현자, 1992; 태영숙, 1996), 뇌졸중(김경옥, 2001), 정신질환(정희경, 2008), 척추손상(박미숙,

1997), 수술 전 환자(이미자, 1997) 등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결과 환자가 주변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도 높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희망수준에서 개인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 희망수준은 성별과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주장(임현자, 1992; 태영숙, 1996)도 있고 차이가 없다는 주장(김경옥, 2001; 문희, 이정숙, 1995; 이미자, 1997)도 찾아볼 수 있다. 종교유무의 경우, 종교는 개인에게 무의식적으로 긍정적 사고를 하게 만들고 희망을 갖게 한다는 주장을 고려해 볼 때(Robert, 1999) 희망과 관련될 것으로 예측되나,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개인의 일반적 배경변인으로 성별,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한 학교급, 종교유무를 선택하여 이들 배경변인이 희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희망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배경변인과 희망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들 개인 배경변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희망과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지지유형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희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희망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2)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희망의 관계는 어떠한가?
- 3) 청소년의 개인 배경변인과 사회적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4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에서 중학생은 195명, 고등학생은 205명이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은 208명, 남학생은 192명이었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16.4세였다. 출생순위별로는 장남 또는 장녀가 43.8%로 많았고, 종교유무별로는 종교가 없는 학생이 56.3%로 종교가 있는 학생보다 좀 더 많았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이 아버지 57.3%, 어머니 43.1%로 나타나 부모의 학력은 중상정도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경우 기능직(23.8%)과 판매직(23.8%)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 가정주부(41.8%)가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50.1%로 연구대상 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은 중간정도임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 지지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지지제공자별로 구체적인 지지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한 윤혜정(1993)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제공자는 부모, 교사, 친구였다. 이들 각 지지제공자의 지지유형을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지지유형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서적 지지(7문항)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지지로 사랑, 이해, 격려, 공감적 경청 등에 관한 것이다. 평가적 지지(6문항)는 칭찬, 소질인정, 인격존중, 공정한 평가, 의사존중 등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적 지지(6문항)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지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제공 등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물질적 지지(6문항)는 필요시에 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되었고(박지연, 1985), 윤혜정(1993)이 보고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는 부모지지 .91, 교사지지 .92, 친구지지 .90으로 나타났다.

2) 희망

청소년이 보고한 희망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권경희(2008)가 개발한 청소년용 희망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한 믿음(9문항)은 자신을 격려해주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스스로가 가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삶(7문항)은 직접적으로 대안을 찾고 결정한 일을 행하며 꿈을 성취하기 위해 도전하는 실제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신뢰(5문항)는 종교에 대한 신념과 자신의 앞날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고, 목표도달 가능성 평가(9문항)는 인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목표성취가능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만큼 성취되어 있는가를 인지하는 것이다. 구성타당도 및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는 권경희(2008)에 의해 검증되었으며, 권경희(2008)가 보고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희망 척도의 전체 Cronbach의 α 는 .91, 하위영역별 Cronbach의 α 는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한 믿음 .90,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삶 .91, 미래에 대한 신뢰 .92, 목표도달 가능성 평가 .9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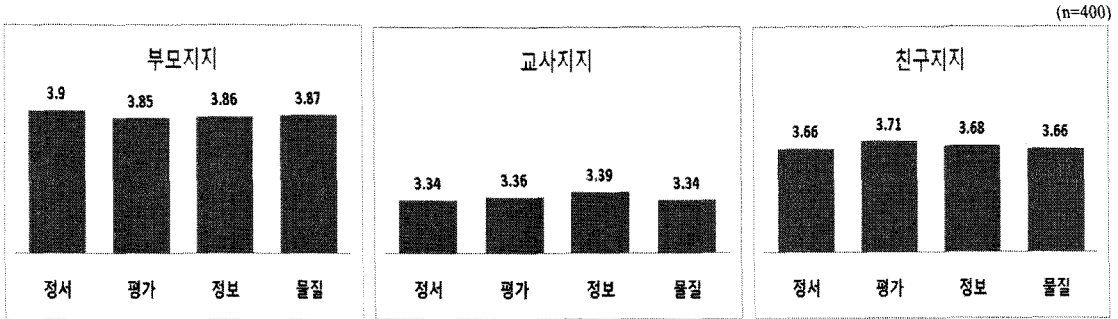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09년 7월 2일에 측정도구

문항의 적절성과 질문지 작성시 소요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답변 소요시간은 평균 13~15분정도였으며, 설문문항은 학생들이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본 조사는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5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사전에 협조를 약속한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이메일로 질문지 응답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우편으로 질문지를 보내 의뢰하였다. 각 학급의 교사들을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지 응답요령과 간단한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수업시간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는 해당수업시간에 교사가 바로 수거하여 학교별로 수집한 후 우편으로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총 425부가 배포되었고, 각 학급의 체육특기생과 특수학급생의 응답은 제외시켜 총 407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와 이중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총 400부를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희망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 때, 각 하위요인별 문항 수가 다르므로 각 하위요인의 총점을 하위요인의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제공자별 지지와 희망의 일반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알아보고, 개인 배경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인으로 희망을, 1단계 독립변인으로 개인 배경변인인 성별, 학교급, 종교유무를, 2단계 독립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제공자에 따른 각 지지유형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지지제공자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위해 SPSS 12.0을 이용하였다.



[그림 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제공자에 따른 지지유형별 평균

III. 연구결과

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희망의 일반적 경향

먼저,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 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제공자에 따른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림 1]에는 사회적 지지제공자에 따른 지지유형별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부모로부터의 지지 중 청소년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은 정서적 지지(M=3.90, SD=.64)였으며 다음으로 물질, 정보, 평가적 지지 순이었으나 평균점수는 비슷했다. 교사로부터의 지지 중 청소년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은 정보적 지지(M=3.39, SD=.75)였으며 다음으로 평가적 지지, 정서와 물질적 지지 순이었다. 끝으로 친구로부터의 지지 중 청소년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은 평가적 지지(M=3.71, SD=.68)였으며 다음으로 정보적 지지, 정서와 물질적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제공자를 비교해 보면, 전반

적으로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지지(M=3.87, SD=.66)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친구로부터의 지지(M=3.68, SD=.63), 교사로부터의 지지(M=3.36, SD=.74) 순이었다. 각 지지제공자내에서 지지유형에 따른 평균차이는 매우 적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희망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하위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희망의 하위영역은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한 믿음(M=4.33, SD=.91)이었으며, 다음으로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삶(M=3.93, SD=.88), 미래에 대한 신뢰(M=3.75, SD=.90), 목표도달 가능성 평가(M=3.49, SD=.70) 순이었다.

2.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희망의 관계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희망의 전반적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 제공자별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표 1]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희망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희망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한 믿음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삶	미래에 대한 신뢰	목표도달 가능성 평가	전체
부모지지		.38***	.22***	.33***	.19***	.35***
교사지지		.28***	.18***	.18***	.08	.23***
친구지지		.41***	.31***	.28***	.18***	.37***
전체		.47***	.31***	.34***	.19***	.41***

* p<.05, *** p<.001.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 제시되었듯이 희망 전체는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관련성의 크기를 살펴보면 희망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것은 친구지지였으며, 부모지지, 교사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희망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한 믿음은 나머지 영역보다 더 밀접하게 사회적 지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한 믿음은 특히 친구로부터의 지지와 부모로부터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강했다. 반면 목표도달 가능성 평가와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은 다른 하위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3. 청소년의 배경변인과 사회적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배경변인과 사회적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 배경변인인 성별, 학교급, 종교유무를 통제하고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희망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알아보고자 1단계에 개인 배경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 사회적 지지 변인을 투입하였다. 모든 회귀분석에서 성별(남 1, 여 0), 학교급(중학교 1, 고등학교 0), 종교유무(유 1, 무 0)는 가변수화하여 투입하였다. 또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수(VIF)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70~.99)는 1.0에 근접하며, VIF(1.0~2.95)는 10보다 훨씬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1) 청소년의 배경변인과 제공자별 사회적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모형1에 배경변인인 성별, 학교급, 종교유무를 투입하고, 모형2에 제공자별 사회적 지지를 추가 투입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을 살펴보면, 개인 배경변인으로 구성된 모형1에서는 성별과 종교유무가 희망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모형1의 F통계값은 2.93, 유의확률은 .033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희망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 모형에서 희망 총 변화량의 2.2%가 설명되었다. 다음으로 이들 배경변인에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를 추가한 모형2의 F통계값은 16.87, 유의확률은 .001보다 작게 나타나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희망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변인은 희망 변화량의 18.3%를 추가로 설명하면서 개인 배경변인이 설명한 것 이상으로 희망을 설명하는 데 새롭게 기여하였다. 모형 2에서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지지보다 컸다. 이 모형에서 청소년의 희

<표 2> 청소년의 배경변인과 제공자별 사회적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형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B	β	B	β
배경변인		성별	.032	.023	.137	.100*
		학교급	-.003	-.002	-.050	-.036
		종교유무	.205	.147**	.161	.116**
제공자별 사회적 지지		부모지지			.154	.169**
		교사지지			.097	.133**
		친구지지			.252	.266***
ΔR ²			.022*		.183***	
R ² (Adjusted R ²)			.022 (.014)		.205 (.193)	
F			2.932*		16.870***	

* p<.05, ** p<.01, *** p<.001.

〈표 3〉 배경변인과 부모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형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B	β	B	β
배경변인		성별	.032	.023	.028	.020
		학교급	-.003	-.002	-.068	-.049
		종교유무	.205	.147**	.163	.118*
부모의 지지유형		정서적 지지			.002	.014
		평가적 지지			.023	.168
		정보적 지지			.040	.295***
		물질적 지지			-.016	-.113
ΔR^2			.022*		.134***	
R^2 (<i>Adjusted R²</i>)			.022 (0.14)		.155 (.140)	
F			2.932*		10.309***	

* p<.05, ** p<.01, *** p<.001.

망 총 변화량의 20.5%가 설명되었다. 정리하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종교가 있는 청소년들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보다 희망수준이 높았으며, 친구지지, 부모지지, 교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희망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배경변인과 제공자별 사회적 지지유형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배경변인, 각 제공자별 사회적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지지제공자별로 지지유형의 영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부모, 교사, 친구 지지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청소년의 배경변인과 부모로부터의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모형1에 배경변인을 투입하고, 모형2에 부모의 지지를 유형별로 변인화하여 추가로 투입하였다.

<표 3>를 살펴보면, 개인변인으로 구성된 모형1에서 F통계값은 2.93, 유의확률은 .033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희망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개인변인에 부

모로부터의 지지를 유형별로 변인화하여 추가한 모형2의 F통계값은 10.31, 유의확률은 .001보다 작게 나타나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희망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부모로부터의 지지 중 정보적 지지가 희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에서 청소년의 희망 총 변화량의 15.50%가 설명되었다. 즉 종교가 있는 청소년들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보다 희망수준이 높았으며, 부모의 정보적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희망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배경변인과 교사로부터의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모형1에 배경변인을 투입하고, 모형2에 교사의 지지를 유형별로 변인화하여 추가로 투입하였다.

<표 4>를 살펴보면, 배경변인으로 구성된 모형1의 F통계값은 2.93, 유의확률은 .033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희망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배경변인에 교사로부터의 지지를 유형별로 변인화하여 추가한 모형2의 F통계값은 5.04, 유의확률은 .001보다 작게 나타나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희망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 모형에서 희망 총 변화량의 8.2%가 설명되었다. 하지만 교사의 지지유형에 따른 각 독립변인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배경변인과 교사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형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B	β	B	β
배경변인		성별	.032	.023	.072	.052
		학교급	-.003	-.002	-.105	-.076
		종교유무	.205	.147**	.210	.151**
교사의 지지유형		정서적 지지			.000	.005
		평가적 지지			.004	.013
		정보적 지지			.010	.010
		물질적 지지			.016	.010
ΔR^2			.022*		.061***	
R^2 (Adjusted R^2)			.022 (.014)		.082 (.066)	
F			2.932*		5.035***	

* p<.05, ** p<.01, *** p<.001.

(3) 청소년의 배경변인과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모형1에 배경변인을 투입하고, 모형2에 친구의 지지를 유형별로 변인화하여 추가로 투입하였다.

<표 5>을 살펴보면, 배경변인으로 구성된 모형1의 F통계값은 2.93, 유의확률은 .033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희망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배경변인에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유형별로 변인화하여 추가한 모형2의 F통계값은 10.31, 유의확률은 .001보다 작게 나타나 모형에 포

함된 독립변인은 희망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친구로부터의 지지 중 평가적 지지가 희망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희망 총 변화량의 17.7%가 설명되었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종교가 있는 청소년들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보다 희망수준이 높았으며, 친구로부터의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희망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배경변인 중에서는 성별과 종교 유무가 희망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사회적 지지제공자 중 부모, 교사, 친구 모두가 배경

〈표 5〉 배경변인과 친구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

변인	모형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B	β	B	β
배경변인		성별	.032	.023	.154	.112*
		학교급	-.003	-.002	-.017	-.012
		종교유무	.205	.147**	.172	.124**
친구의 지지유형		정서적 지지			.018	.139
		평가적 지지			.030	.209*
		정보적 지지			.018	.109
		물질적 지지			-.003	-.023
ΔR^2			.022*		.153***	
R^2 (Adjusted R^2)			.022 (.014)		.177 (.162)	
F			2.932*		10.312***	

변인이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의 희망을 설명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제공자별로 지지유형을 변인화하여 분석한 결과, 지지제공자가 부모인 경우 정보적 지지가, 친구인 경우 평가적 지지가 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희망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사회적 지지와 희망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지지제공자별로 지지유형을 구분해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은 평균적으로 볼 때 부모, 교사, 친구 중 부모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 지지원임을 시사한다. 또한 다음으로 높게 지각한 친구지지는 이 시기 또래와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중요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로부터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지은의 연구(2005)에서는 교사지지를 부모지지만 친구지지만보다 더 높게 지각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김지은(2005)은 입시환경에 직면한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문제 상담과정에서 교사의 도움을 높게 지각하였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에는 청소년기 전체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부모지지를 가장 높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각 지지제공자 내에서 정서, 평가, 정보, 물질적 지지의 정도를 살펴보았으나 지지유형별로 주목할만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희망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았고,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삶, 미래에 대한 신뢰, 목표도달 가능성 평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며 자신을 믿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이 크고, 미래에 대한 믿음과 성취의욕을 가지고 도전하지만, 실제 자신들이 성취한 목표에 대한 인지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개인이 가진 실제 능력보다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가 인식하는 목표성취가능성 인지가 낮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청소년의 희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이 가진 능력에 맞게 목표를 세우도록 돕고 한 단계씩 성취해나갈 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 목표도달 가능성을 높인다면 성취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희망 간에는 정적인 관련성이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이 보고한 희망수준이 높았다. 이를 지지제공자별로 살펴보면,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는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한 믿음,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삶, 미래에 대한 신뢰, 목표도달 가능성 평가 그리고 희망 전체와 정적관련성을 보였고, 교사지지는 목표도달 가능성 평가를 제외하고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한 믿음,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삶, 미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희망 전체와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지지,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이 가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앞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데 긍정적이며 자신이 세운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인지하고 판단해 나갈 것으로서 희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임상집단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희망 간에 정적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김경옥, 2001; 문희, 이정숙, 1995; 이미자, 1997)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희망을 고취시키기 위해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제공자를 이용해 사회적 지지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청소년의 개인 배경변인인 성별, 학교급, 종교유무와 사회적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을 투입한 모형과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모두 청소년의 희망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에서는 성별과 종교유무가 희망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 희망수준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자신을 더욱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주체로 보고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희망에 있어 성차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Heaven & Ciarrochi, 2008)에서 청소년 초기까지 여학생들

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희망수준을 나타내다가 본격적인 청소년기에 들어선 후 그 반대가 되었다고 보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성차에 대해 발달단계를 고려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종교유무의 경우, 종교가 있는 청소년들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보다 희망을 높게 보고하였다. 이는 개인의 희망에 있어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Raleigh(1980)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즉 종교적 신념을 갖는 것은 희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 변인에서는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모두가 희망을 의미있게 예측하였다. 이들 지지제공자별로 희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친구지지가 부모지지만 교사지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 적절한 도움, 지원, 인정을 받을 때 희망이 높았다. 청소년기에 개인은 부모보다는 친구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Larson et al., 1996) 친구와의 친밀감이나 신뢰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Bendt, 1982) 청소년의 희망에도 그 어떤 제공자보다 친구의 지지가 큰 영향을 미친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시기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자신과 비슷한 과제에 당면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의 영향력을 보여준 결과라고 하겠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희망에 부모의 지지 및 교사의 지지도 의미있게 기여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희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종교활동, 주변 의미있는 타인들의 행동과 언어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배경변인인 성별, 학교급, 종교유무에 관계없이 지지제공자에 따라 어떤 지지유형이 희망을 설명하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의 경우 정보적 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부모의 충고, 조언, 지식 등이 잘 제공된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들의 희망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희망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은 청소년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필요시에 적절한 정보적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지제공자가 친구인 경우, 평가적 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친구 사이에서의 칭찬, 소질인정, 의사존중 등 좋은 평가를 받을수록 희망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구의

평가적 지지가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부모와 교사의 경우 수직적인 관계로 주로 지시나 명령을 전달받는 것에 반해 친구들은 비슷한 연령과 상황에 있는 수평적 관계로 일상적 대화를 통해 서로를 칭찬, 격려하고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친구사이에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도록 교육한다면 청소년의 희망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지지제공자가 교사인 경우, 세분화된 지지유형 중 어떤 변인도 희망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였다. 교사지지의 경우, 다른 지지제공자의 지지에 비해 희망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를 다시 세분화해 희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각 지지유형의 영향력은 보다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 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보다 희망수준이 높았고, 친구, 부모,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희망수준이 높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정보적 지지와 친구의 평가적 지지가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문제 상황이나 의사결정상황에서 부모에게서 받는 충고나 조언, 지식 등의 정보적 지지와 친구들 사이에서 인격적인 존중과 칭찬을 받는 평가적 지지가 높으면 희망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희망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는 청소년이 문제에 직면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적절한 조언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구사이에서는 개개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해주고 친구가 가진 장점을 인정하며, 공정한 평가를 통해 칭찬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 자신에게 맞는 종교생활을 하도록 추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와 희망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희망의 관련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고려되어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인문계 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청소년들에게 일

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추후 지역별로 대상을 확대하여 후속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학교급, 종교유무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희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개인 배경변인 및 가정변인(예: 학교계열, 부모의 양육형태 등)을 포함해 살펴본다면 희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와 희망의 관계를 알아보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이나 청년, 일반 성인들까지 그 대상을 확장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경희(2008). **청소년의 희망 측정도구 개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옥(2001). **뇌졸중 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희망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2005).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동아출판사 편집국(2000). **동아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 문희 · 이정숙(1995). **암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불편감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4(1), 27-44.
- 박미숙(1997). **척추손상 환자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희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자(1997). **수술 전 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희망과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9(3), 480-494.
- 임현자(1992). **암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희망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경(2008). **정신분열병 환자의 희망과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태영숙(1996). **암환자의 희망과 삶의 질과의 관계연구**. *성인간호학회지*, 8(1), 80-92.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정은(2006).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표현능력,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 남녀공학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ndt, T. 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Chang, E. C. (1998). *Hope, problem-solving ability, and coping in college student population: Some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 953-962.
- Curry, L. A. & Snyder, C. R. (2000). *Hope takes the field: Mind matters in athletic performances*. In C. R. Snyder (Ed),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 pp. 243-26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Heaven, P., & Ciarrochi, J. (2008). *Parental styles,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hope and self-esteem*.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2, 272-724.
- Herth, K. & Cutcliffe, J. R. (2002). *The concept of hope in nursing 6; research/ education/ policy/ practice*. *British Journal of Nursing*. 11(21), 1404-1411.
- Larson, R. W., Richards, M. H., Moneta, G., Holmbeck, G., & Duckett, E. (1996). *Changes in adolescents' daily interactions with their families from ages 10 to 18: Disengagement and trans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2, 744-754.
- McGee, R. F. (1984). *Hope: A factor influencing crisis resolution*. *Advances in Nursing Science*, 6, 34-44.
- Miller, J. F. & Powers, M. J. (1985). *Inspiring hop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85(1), 22-25.
- Raleigh, E. (1980). *An investigation of hope as manifested in the physically III Adult*. Doctoral dissertation, Wayne State University, Detroit, Michigan.
- Robert, A. E. (1999). *Religion in the psychology of personality: An introduction*. *Journal of Personality*,

- 67(6), 874-888.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 Smith-Storner, M., & Frost, A. L.(1999). How to build your "hope skills". *Nursing*, 29, 49-51.
- Snyder, C. R. (1996). To hope, to lose and hope again. *Journal of Loss and Trauma*, 1, 1-16.
- _____ (2002). TARGET ARTICLE: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 249-275.
- Snyder, C. R., Cheavens, J., & Sympson, S. C. (1997). Hope: An individual motive for social commerce.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 107-118.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et al.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Stotland, E. (1969). *The psychology of hope*.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광주광역시 4개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개인 배경변인과 사회적 지지 및 희망에 대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제공자 중 부모의 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순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희망 영역 중 자신의 삶과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목표도달 가능성 평가를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청소년들이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희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과 종교유무 및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 종교가 있는 청소년들이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보다 희망수준이 높았고, 사회적 지지 중 부모의 정보적 지지와 친구의 평가적 지지는 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